

<님의침묵> 초간본 역사박물관 전시

한용운 스님의 흔적 느낄 수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근현대사 박물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관장 김왕식)에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초간본이 전시됐다.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초간본

1926년 출간된 시집 <님의 침묵(沈?)>은 한국 근대시사에 있어서 기념비적 시집 중 하나다. <님의 침묵>은 이 땅에서 근대적 자유시가 창작되기 시작한 이래 형이상학적 사유를 자유시라는 형식 속에 녹여낸 최초의 시집이다. 또한 심오한 불교적 사유에 시적 인식이 닿아 있어, 우리의 근대 자유시에 철학적이며 명상적인 깊이를 불어넣어 주었다.

상점점, 옥상 정원 등을 갖췄다.

한용운 스님은 관념적인 철학과 사상을 예술적 형상으로 미학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사상의 정서화라는 근대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근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 2008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총 44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상 8층 건물을 완성했다. 여기에는 상설전시실 4개와 기획전시실 2개를 비롯해 수장고, 세미나실, 강의실, 카페, 문화

대사를 연대순으로 보여주는 상설전시실

4개는 3층에서 5층까지의 공간에 배치

있다. 3층의 제1전시실 '대한민국의 태

(1876~1945년)'을 시작으로 4층 제2

전시실 '대한민국의 기초확립(1945~1960

년)', 5층 제3전시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1961~1987년)'과 제4전시실 '대한

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1988~)

'순으로 마련됐다.

정혜숙 기자

“박물관서 탐이야기 들어봐요”

경주박물관 겨울방학 프로그램 진행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겨울방학을 맞아 '경주박물관과 함께하는 겨울방학'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주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현장

경주박물관은 2월 24일까지 박물관 전시품을 주제로 강의와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좌는 '탐 이야기', '심이자와 올해의 띠', '비단길 따라 온 문화재'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신청가능교육>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 일주일 전부터 프로그램별로 선착순 모집한다. (054)740-7500

주말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가족 박물관 여행'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 불상의 얼굴을 주제로 교육사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 △ 문화재 달력 만들기 체험 △ 단소를 직접 만들고 배울 수 있는 '박물관 단소 교실' 등도 진행된다.

신청은 박물관 누리집 '교육 및 행사'

정혜숙 기자

한국예술원 동양문화예술과 개설

담원 김창배 교수로 임용

Kac한국예술원에서는 선묵화·차문화예술·서예·문인화·현대 미디어를 융·복합하는 동양문화예술을 전공과목으로 신설하고 2013학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세부 선택 전공으로 불화·캘리그래피·민화·동양화·전각·서각 등의 과목을 학습하는데 졸업 후 예술학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음했다. 김 작가는 선묵화와 차문화를 주제로 선묵화법, 달마화법 등으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입학 가능하며, 서류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다. 그리고 스님은 특별 전형으로, 서·화계, 차문화계에서 인정하는 각 협회의 공모전 입상자와 협력기관장의 추천에 의한 전형자에게는 입학 우선권 및 장학금을 지급한다. (02)736-7445

전임 교수로는 담원 김창배 작가가 임

정혜숙 기자

함께 읽고 '法' 나누다 보면 불심 '성장'

불서 모임은 바른 신행의 길잡이

“벗이여 고평마시여,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입니까? 또는 영혼과 육체는 다른 것입니까?” 자, 이 구절에서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부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동산반야회 니까야독송반 회원들의 목요일 저녁은 이렇게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북칼럼니스트이자 동국대역경위원 이미령 씨의 지도로 20분의 설명과 토론을 거쳐 <니까야> 구절을 독송한다.

7년 결사로 진행되고 있는 니까야 독송반이 요즘 읽고 있는 경전은 <맛지마니까야>다. 회원들은 이렇게 경전을 함께 독송하고 배우며 부처님의 말씀을 익히고 몸으로 체득하며 수행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불서를 함께 읽으면 혼자 읽을 수 없는 책도 읽게 되고 서로의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자신의 편견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독서모임이 주는 혜택이다.

불교계에도 다양한 독서모임이 있다. 북칼럼니스트 이미령 씨가 이끄는 '붓다와 떠나는 책여행'과 동산반야회의 니까야독송반, 일산 정토법당의 암바파, 재가자들의 모임 불력회, 정운 스님이 운영하는 니련산하, 부산 연천사 독서 모임 등은 불서를 읽고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불서 독서모임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은 매주 수요일 조계종 총무원 2층 회의실

에서 열리고 있는 카페 '붓다와 떠나는 책여행' 불서모임이다. 매주 수요일 저녁 2시간 가량 진행되는 이 모임은 8년째 매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다. 불서는 물론 생애 인문학 서적도 읽으며, 중간에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서로 질문을 하고 의견을 내고 대답해 주며 모임을 진행해 나간다.

'불력회'·'붓다와...' 등

다양한 불서 모임 곳곳서

니까야독송반 7년 결사 발원

암바파...성경 읽기도 시도

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미령 씨는 “불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불서를 읽고 불교에 귀의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불서의 역할은 크다. 불서를 꾸준히 읽는다는 것은 수행과 같다. 자신의 목소리로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가 안정을 찾고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래서 불서 모임은 또다른 하나의 법회와 같다”고 전한다.

정토회 일산법당 회원들로 구성된 암바파 독서모임은 2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독서회다. 암바파라는 모임의 명칭은 경전 속에서 분별심이 많은 바라문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이는 수행의 과정에 있는 회원들 스스로를 가르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수행을 책정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원들 대부분이 주부들이지만 가벼운 책보다는



교계에 다양한 독서 모임을 통해 꾸준히 불서읽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동산반야회의 니까야 독송반 모습.

<금강경> <대승기신론소> <화엄경> 등 묵직한 내용의 불서를 고집한다.

회원 임원영 씨는 “대부분 불교서적이 어려워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함께 모여 불서를 읽고 서로의 의견을 말하다보니 어느새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다. 회원 중에는 같은 주제의 책을 여러 종류 읽고 오는 분들도 몇 명 있을 만큼 열의가 대단하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내용을 경전에 대입시키다보니 더 풍부한 이해력이 생긴 거 같다”고 전한다.

불력회 역시 월 1회 독서 모임을 갖는다. 99년도부터 시작해 매월 종로 3가 아미타사에 모여 달라이라마, 탁남한, 법정 스님, 법륜 스님 등의 책을 읽으며 심신을 키워 나가고 있다.

니련선하원은 조계종 교수 아사리 정운 스님이 이끄는 독서 모임이다. 2003년부터 시작해 10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불서는 물론 소설, 인문학 등 다양한 영역을 섭렵하고 있다. 정운 스님은 “돌아가면서 발표문을 작성해와 읽는 방식으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10년 동안 독서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모여 다양한 책을 읽으며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다. 하지만 불서는 지식을 얻는 동시에 불법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불서모임은 대중들 모두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통불화서 보는 다채로운 '뱀'

핑크붓다 '뱀은...' 전시

프로젝트 아티스트 그룹 핑크붓다(Pink Buddha)는 불교를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결성됐다. 불교예술을 보다 친숙하고 편하게 표현해 대중들에게 불교의 본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 핑크붓다의 목표다.

뱀의 해를 맞아 핑크붓다가 1월 11~20일 종로구 가회동에 자리한 갤러리한옥에서 '뱀은 봄에 탈피를 한다' 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획자 조수연(동국대 대학원 불교미술전공 박사과정) 씨를 주축으로 핑크 이명아, 이정은, 전경희, 정금률, 정운영, 허효진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불교 회화·동양화·서양화는 물론 패션, 불교학, 디자인경영, 사운드아트 등 각각의 전공을 바탕으로 뱀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생각을 작품으로 펼쳐낸다.

다양한 전공의 작가들로 구성된 핑크붓다(Pink Buddha)는 '뱀은 성장할 때 허물을 벗는다. 그리고 탈피하지 못한 뱀은 생명을 잃고 만다'는 점에 착안해 첫 전시를 기획했다.

기획자 조수연 씨는 “작품 또한 회화, 공

뱀에 대한 다양한 생각 표현

11일~20일까지 갤러리한옥서

예, 의상, 설치, 음향 등으로 다양하다. 다양한 시각에서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각자 불교적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한 실험적인 전시다. 또한 관람객이 종교예술이라는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좀 더 친근감을 갖고 접근하게끔 유도한 관객 참여형 전시”라고

설명한다.

조수연의 '마음의 정돈'은 선정에 든 평화롭고도 자비로운 부처님 뒤로 나비가 날고 황금색 뱀이 환희롭게 솟아오른다. 모시바탕에 수간안료로 작업한 작품으로 내면으로의 여행을 통해 고정된 '나'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이정은의 '자개 뱀의 행복한 가치관'은 부귀영화를 뜻하는 모란꽃과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도라지꽃 등을 어우러지게 표현했으며 뱀의 형상에 자개의 아름다움을 더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조 씨는 “종교예술의 형식적 탈피가 아닌 진정한 불교적 의미를 되찾고자하는 점에 뜻을 두고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대중과 작가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열린 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3673-3426

정혜숙 기자



조수연의 '마음의 정돈'

(주)에스넷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티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회음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